

임진왜란 초기 제3국 국제협력 방안에 대한 고찰

김 영 진*

I. 서론

임진왜란에 관한 연구는 오랫동안 한·중·일 동아시아 3국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동시에 개별 국가의 시각이 강하게 투영되었다. 중국에서는 항일원조(抗日援朝)로 표현되는 것처럼 조선을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막아준 것에 초점을 두어왔다. 일본에서는 히데요시의 침략전쟁을 근대 이후 대동아공영권의 선례로서 미화해 왔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는 이순신의 승전과 의병들의 활동 등 왜적을 격퇴한 성과에 초점을 두었다(정두희·이경순, 2007: 18). 이러한 역사해석은 기본적으로 근대화 과정에서 각국에 대두되었던 내셔널리즘을 반영했지만, 사건의 복합적 측면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국제관계 측면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거시적 측면에서 임진왜란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를 반영하거나 또는 변화를 추동한 계기로서 이해되었다. 이를테면 수천년 동안 유지되던 조공책봉 체제를 특징으로 하는 중화질서에 대한 일본(또는 히데요시)의 도전 등 전통적 동아시아 질서의 와해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찾았던 것이다(이완범, 2002; 김한규, 2007; Hawley, 2014; 호리 신, 2010; Swope, 2009). 그와 함께 전쟁 당사자들의 양국관계에 대한 연구도 점차 확대되었다. 양국관계의 개설적 연구(한명기, 1999)에 그치지 않고, 개별 영역에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 국민대학교 중국학부 교수(kimyj@kookmin.ac.kr)

특히 국가간의 관계에는 협상이 중요하고, 실제 임란의 많은 기간 동안 강화 협상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김문자, 2010; 김경태 2014; 이완범 2002). 그 외에도 특정인에 의한 외교활동과 교섭, 이를테면 정군수(박인호, 2018) 이덕형(이철성, 2007), 이항복(정역기, 2007), 유성룡(김한신, 2017), 유근(이숙경, 2011), 사명당 유정(김문자, 2005) 등에 관한 연구나 청병외교와 파병(최소자, 1977; 손중성, 1990), 명에 대한 보고와 국왕의 내부(內附)(김영진, 2018), 조선과 일본군의 교섭(김경태, 2018) 등 특정 이슈들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다만 대체적으로 직접적인 전쟁 당사자인 조선·명·일본 사이의 관계에 초점이 주어지고 있다.

사실 임진왜란 당시의 전쟁관련 논의나 전략에서는 조·명·일 이외의 여러 나라들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이를테면 유구(琉球), 섬라(暹羅, 태국의 옛 명칭인 시암Siam), 점성(占城)과 같은 동남아 국가들, 여진(女眞) 등이 대표적이다. 우연하게도 유구와 섬라의 참전이 논의될 때, 이들의 사신과 조선의 사신이 각각 북경에서 서로 조우했다. 제3국가들은 결국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진왜란의 국제적 성격을 규정하는데 그 중요성이 크지 않다고 할지 모른다.¹⁾ 그렇지만 한편으로 그들을 무시하기에는 아래에서 언급

1) 실제 주변국 사람들의 참전은 있었다. 그들은 사천성 군대인 천병(川兵)을 이끌고 왔던 유정(劉縱)의 군대에서 확인되었다. 1593년 4월 4일 예조판서 윤근수는 유정의 군대를 사천, 귀주 그리고 섬라 출신 사람들로 선조에게 보고했다. 『宣祖實錄』, 1593/4/4: 3) 날짜는 명시되지 않으나 이항복도 4월 초 선천(宣川)에서 유정의 진영을 방문했다. 유정의 군대는 불과 며칠 전에 압록강을 건너 그곳에 도착한 상태였다. 유정은 여러 지역 출신의 군사들을 도열하여 이항복에게 각종 특이한 무기들로 종일 시범을 보였다. 출신지는 섬라(暹羅)·도만(都蠻, 사천성 소수민족)·소서천축(小西天竺, 인도)·육번(六番)·득능국(得楞國)·묘자(苗子)·서번(西番, 청해성 동남부 서강西羌)·삼색(三塞)·면국(緬國, 버마)·파주(播州, 귀주성 북부)·당과(鎗鈿)이었다. 『宣祖實錄』, 1593/4/10: 2) 여기에는 남번(南番)에서 온 ‘얼굴이 귀신처럼 진한 검은 색’의 흑인 수십명이 포함되었다. 『再造藩邦志』 卷二, 四十六) 그럼에도 이들은 유정의 가정(家丁)으로서 일종의 사병(私兵) 내지는 용병(傭兵)에 해당되었고, 그가 이끌던 5천명 가운데 몇백명에 불과했다. 이 사례에서 동아시아의 새로운 연대의 의미를 찾기도 하지만(李鉉淙, 1974), 사실 국가간 협력은 아니며, 임진왜란의 국제적 성격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처럼 각종 문건에서 너무나 많이 언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현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서 의미가 없지 않을 것이다. 즉, 조·명·일 모두에게 동남아 국가들과 공조는 전략적으로 중요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유구가 복종하지 않은 상황에서조차 이미 자신에게 복종했다면서 조선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논리를 활용했다. 물론 반대로 조선이 이미 복종했으니 유구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명이나 조선의 경우에도 일본에서 가까운 동남아 국가들의 협력은 일본 본토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내포했다. 이것은 실현 가능성을 떠나 소문만으로도 일본으로 하여금 전체병력을 조선이나 명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더욱이 조선의 입장에서 다른 국가들과 협력은 전통적 중화질서 관념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었다. 주지하는 것처럼 조공책봉 관계에서 제3국과 양자간 협력은 이론상 용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국제협력은 조선 일부에서도 중요한 전략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명에 대한 사대에 충실했던 서인으로서 조현이 그것을 가장 적극 제기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정치적·경제적 교류가 상당히 있었던 유구와의 협력을 조정이 배제한 것은 여전히 중화질서의 사고와 무관하지 않았다. 또한 국제협력은 외침으로 나라의 명운이 절박한 상황에서라도 무조건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국가간의 현실적 권력관계를 반영했다. 이를테면 조선과 국경을 접하면서 새롭게 부상하는 건주여진의 협조제의를 조선이 거부했던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나아가 동남아 조공국가들의 참전 여부는 전통적 중화질서의 실체를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즉, 크게는 중화질서의 응집력, 작게는 명의 주변국들에 대한 권위나 강제력의 척도가 될 수도 있다. 지리적으로 볼 때, 이들이 만일 명을 도와 일본을 직접 공격할 수 있다면, 명과 조선의 입장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더욱이 히데요시가 전쟁도발 직전 유구와 조선을 자기편으로 삼아 명을 침략하려 했던 것에 비추어 본다면, 명이 주변 국가들의 참여에 관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웠다. 명도 그러한 전략을 시도했음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修辭)와 현실적 제약 사이 깊은 간극은 중

화질서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은 조선에서도 내부적으로 제기되기도 하고, 또 명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진할 역량은 물론 의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에 반해 히데요시의 경우에는 대마도의 전면적 참전과 유구의 부분적 협력을 강제하는데 성공했다. 다만 조선은 정명가도에 반발했고, 히데요시의 대륙진출은 좌절되었다.

이 글에서는 임진왜란의 주요 당사국으로 참전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전략적 차원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섬라, 유구, 여진 등과 주변국들의 협력방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히데요시의 침략에 대응하여 조선과 명에서 제기되었던 연대 방안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조선과 명에서 제기된 방안들과 그리고 심각한 고려의 대상이 되었던 섬라, 그리고 스스로 협력을 자청한 건주여진의 예를 살펴본다. 결론에서는 전반적인 특징들에 대한 종합과 역사적 함의에 대해서 살펴본다. 관련 자료들이 산발적이어서 전체를 입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고, 사료 해석도 시각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자료의 해석보다는 수집과 정리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Ⅱ. 임란 초기 국제연대 방안들

1. 조헌의 제안

국제적 연대와 관련된 체계적인 언급은 조선에서는 임란발발 이후 의병활동 등을 선도하게 되는 조헌(趙憲)에 의해 대표되었다. 당시 일본에 통신사의 파견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진 상황이었으니 왜란이 발생하기 몇 년 전의 일이었다. 임진왜란 직후 그것을 기록했던 안방준(安邦俊, 1573-1654)은 1587년부터 1591년 사이 수년간 조헌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유구와 남양(동남아)의 여러 나라들에 격문을 보내고, (히데요시에 의해 실권한) 원씨(源氏)의 옛 신하들을 이익과 손익으로 깨우치고 충의를 자극

하면, 왜적은 반드시 내부적으로 분열될 것이고, 여러 나라들이 반드시 공분(公憤)할 것이다. 명의 군사가 대오를 갖추고 수군을 동남쪽으로 계속 보내 다방면으로 위협한다면, 히데요시는 나라를 세운지가 얼마 되지 않아 좌우를 고려해야할 것이기 때문에 쉽게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소위 ‘용병의 최고 방법은 모략을 써서 적에 승리하는 것이다’, 즉 싸우지 않고 남의 군사를 굴복시키는 것이다. (히데요시가) 명령을 하여 군사를 보내온다고 해도 대규모로 들어오지는 못할 것이다.”²⁾

일종의 국제적 연대를 통해서 히데요시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헌이 제3국과의 협력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은 1591년 3월이었다. 얼마 전 조선통신사가 귀국할 때 가져온 히데요시의 국서에는 명에 대한 침략과 함께 조선의 협력을 협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에 조헌은 백의를 입고 대궐문 앞에서 사흘 동안 엎드려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장문의 상소를 통해서 왜의 사절을 목베어 황제께 바치고 조선의 입장을 전달할 것을 주장했다. 그때 그는 왜적의 사지를 남양의 여러 나라들에 보내서 군대를 갖추고 적당한 때를 기다려 히데요시를 공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헌의 협력 범위는 명, 유구, 그리고 일본과 대마도의 백성들을 포괄했다. 그는 황제에게 보내는 표문(表文), 유구왕에게 보내는 서신, 일본과 대마도의 유지들에게 각각 보내는 글 등의 초안을 작성하여 상소문에 부록으로 제출했다.

유구왕에게 보내는 글의 초안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조선과 유구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황제가 정해진 윤리와 질서를 공유하고 있다. 최근 히데요시가 조선의 길을 빌려 명을 엿보려는 흉계를 꾸미고 있는데, 그는 조선과 명뿐만 아니라 여러 주변국들을 병탄하고자 한다. 따라서 유구에서도 수군을 보내서 일본지역을 직접 공격하고, 아울러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격문을 보내 동참을 촉구해 달라. 그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2) 移檄琉球南洋諸國。論以源氏舊臣民。喻以利害。激以忠義。則倭奴必內相貳。諸國必同憤疾。天兵整飭。水軍羅絡東南。多方脅之。平酋立國日淺。不免左右顧慮。必不敢輕動。此所謂上兵伐謀不戰而屈人兵者也。就令能來。必不能大舉深入。(『壬辰記事』, 『隱峯全書』 卷六, 十一)

“멀리서 듣건대 귀국의 풍속은 평소 공순한 이웃을 침범하는 나라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히데요시의 일을 들었으면 반드시 목욕재계하고 토벌을 요청하고 싶을 것입니다. 원컨대 충의로운 군사들을 이끌고 수군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일본 지역을 직접 치십시오. 아울러 남양의 여러 나라들에게도 반드시 격문을 전하여, 정예병이 함께 가서 히데요시의 허를 틈타도록 기약하고, 빼앗은 남녀노비들과 보물은 나누어 갖도록 하십시오. 용감한 장수를 별도로 파견하여 히데요시의 귀로에 있는 요새지를 막고, 혹 현지 섬의 접대자로 위장하여 같은 옷을 입고 맞이하게 하여, 그 흉악한 우두머리를 체포해서 참수하여 매다십시오. 그의 죄상을 나열하여 머리를 명나라에 바치고, 그 나라 사람으로서 무고하게 살해된 사람들을 조문하고, 그 나라 사람들 가운데 어질고 살인하지 않는 사람들을 선택하여 나라의 재상과 여러 섬의 군주로 봉하십시오.”³⁾

왜의 사신들을 죽여 머리와 사지를 각국에 보내고, 일본 내 반대세력, 대마도, 유구 등에 격문으로 히데요시에 대한 저항을 꺾어주는 조헌의 발상은 얼른 보아 이상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조헌 스스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에 의하면, 그것은 크게 두 가지 효과가 있었다. 첫째는 조선이 적극적으로 히데요시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명의 조선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뿐 아니라,⁴⁾ 나아가 조선의 국제적 신뢰를 높여줄 것이다. 그와 함께 히데요시도 군대를 국외로 동원할 경우 사방에서 자신을 직접 노리고 있기 때문에 조선을 쉽게 넘보지 못할 것이다(「請斬倭使疏」(1591/3/15), 『重峰集』卷八, 疏 二十二).

3) “遼聞貴邦風俗。素惡犯順之國。其聞秀吉之事。必欲沐浴以請討矣。願率忠義之士。大舉舟師。直掃日域。并須移檄于南洋諸國。簡銳同趨。約乘其虛。子女玉帛。聽其分取。而別遣驍將。控扼于秀吉歸路要害處。或使伴爲本島人供億者。同服以迎。而執其兇渠。斬而梟之。列數罪惡。獻馘于天朝。吊其邦人之無罪而被虐者。擇其國人中仁厚不殺者。分封爲國相諸島主。(「擬致書於琉球國王」, 『重峰集』卷八, 十四-十六).

4) 당시 히데요시가 조선을 앞세워 명을 침범할 것이라는 보고가 유구 등에서 담지했고, 명은 조선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한 의심은 임진왜란 발생 초기까지도 계속되었다(김영진, 2018: 129-142).

2. 조정의 반응

조헌은 그 전에도 통신사 파견은 물론 왜와의 모든 접촉을 거절할 것을 주장했다. 그렇지만 집권세력이었던 유성룡 등 현실주의자들이 통신사 파견을 관철시켰고, 결국 히데요시의 정명가도가 그 회답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 자체를 부인하고 감추는데 급급했다. 그에 반해 조헌은 그 잘못을 솔직히 명에 알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왜적에 대한 강경책을 쓸 것을 제안했다. 그에게 명에 대한 충성은 단지 사대의 의리 문제만은 아니었다. 그는 반복해서 과거 당이 백제와 고구려를 응징했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명의 단죄 가능성을 주장했다. 자칫하면 남쪽의 왜적과 함께 북쪽의 명으로부터 양쪽에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조헌의 발상은 중화질서의 기본구조에 기초하고 있으나, 그 내부의 역동적인 권력관계를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왜적에 대한 강경책을 주장했던 조헌에게서 제국으로서 명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는 오히려 조선 스스로의 실력과 의지를 강조했다. 전에 올린 상소에서 조헌은 히데요시의 잘못을 꾸짖어 나라의 위신을 세우고 모든 역량을 전쟁준비에 동원할 것을 주장했다. 조헌은 송이 북방민족들과 타협적인 정책으로 망하게 되었던 역사적 사례를 반복해서 언급했다. 그에 반해 고구려의 을지문덕(乙支文德)이 살수(薩水)에서 수(隋)나라 군대를 막은 것과 고려 태조가 압록강에서 거란(契丹)의 군대를 저지한 것을 바람직한 예로 들었다. 그는 특히 태조가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이 낙타를 보내왔을 때, 그것을 받지 않고 만리교(萬里橋) 아래서 굶어죽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기가 죽어 고려를 공격하지 못하게 했던 예를 들었다. 따라서 이번에도 군주와 신하가 협력하고 백성들을 자식같이 여긴다면 백성들도 힘을 다해 시수할 것이며, 나라를 심각한 위기에서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請絕倭使三疏」, 『重峰集』 卷七, 二十七-二十八). 당시 중화적 질서에서라면 당연히 했을 법한 명의 군사적 지원 기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비록 황제에 대한 충성

심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나중에 의병의 가치를 들었던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조선 정부는 조헌의 생각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명도 유구 및 섬라와의 협력을 거의 기정사실화하면서, 조선에게도 관련 입장을 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정부는 소극적이었다.

사실 섬라와의 협력에 대해 조선이 소극적이었던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단지 이름만 알 정도로 접촉이 없었고, 지리적으로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유구와 관련해서는 상황이 조금은 달랐다. 유구와 조선은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 양국 간에는 빈번한 공문서와 함께 예물이 교환되었다. 무역도 활발하여 조선에서는 옷감·비단·인삼·호피·종이 등이 수출되었고, 유구는 약재·식물·작물·공예품 등을 수출했다. 조선은 유구에 대장경 등 각종 서적을 보냈고, 유구로부터 배의 건조를 위한 기술자를 불러오기도 했다. 그와 함께 왜구에 붙잡혀간 조선의 피로인(被擄人)들이 쇠환되거나, 조선에 표류한 유구인들이 송환되었다(하우봉 외, 1999: 128-215). 다만 16세기 이후에는 북경에서 사신간 접촉 이외에 양국간 직접적인 교류는 없었는데, 그것은 왜구의 방해와 포르투갈의 동남아 진출 등에 의해 유구의 해상활동이 쇠퇴한 결과였다(양수지, 1993: 2-3, 41).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경을 통한 사신의 교류는 계속되었다.

조헌이 유구와의 협력 필요성을 제기한 것도 이러한 경험에 기인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조선은 적극 추진하지 않았다. 조헌의 제안은 임진왜란이 발생하기 이전이었고, 당시 통신사의 귀국 직후로서, 조정은 여전히 히데요시의 전쟁도발 가능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 중이었고, 결국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으로 정리했다. 당시의 상황에서 조헌의 제안은 너무 앞서 나간 셈이었다. 더욱이 조헌은 상소에서 국내정치, 특히 동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을 제기했고, 그것이 그가 첫 번째 상소 이후 유배되는 이유가 되었다. 조정에서는 조헌의 주장을 “미친 소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亂中雜錄』一, 己丑(1589): 102).

3. 명의 방안

1) 임진왜란 직전

명도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에 제3국과의 협력을 조선에 전달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이 섬라 및 유구와 함께 직접 일본을 치라는 명의 지시는 1591년 5월 성절사로 갔던 김응남(金應南)이 귀국할 때 준 황제의 칙서에 포함되었다. 성절사는 원래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사절이었으나, 당시에는 좀더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히데요시의 요구에 의해 황윤길과 김성일 등의 조선통신사가 그를 만나고 되돌아온 직후였다. 주지하는 것처럼 그들은 히데요시의 침략 가능성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으나, 그들이 가져온 히데요시의 서계에는 명의 침략과 조선의 협력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다(『宣祖修正實錄』, 1591/3/1: 4). 명에 대한 보고여부를 둘러싸고 조정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있었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현도 일본과의 교류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명에 보고할 것을 주장했다. 그렇지만 유성룡 등 현실파들의 의견이 관철되어, 통신사 파견 등 일본과의 교류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포로로 잡혔다 돌아온 사람의 소문으로 왜적이 명을 침범할 것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만 명에 전하기로 했다. 그것은 특히 조선과 히데요시의 직접적인 접촉에 대해서 명이 문책할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김영진, 2018: 130-131).

그런데 명은 유구로부터 히데요시의 도전 가능성에 대한 소식을 이미 직접 보고받고 있었다. 유구의 세자 상영(尙寧)과 현지 중국인들이 히데요시의 계획과 그것을 위한 유구에 대한 협박,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조선의 굴복과 향도에 대한 거짓정보까지 보고했다.⁵⁾ 성절사 김응남이 8월 초 북경에

5) 나중에 조선에 대한 정벌 준비가 시작되면서 유구는 더 많은 요구를 강요받았다. 히데요시의 명을 받아 유구를 중재하던 사쓰마(薩摩)의 번주 시마즈 요시히사(島津義久)는 1591년 10월 서한에서 관백이 장차 조선을 칠 것이니 7천명의 10개월 분 식량과 금은을 다음해 2월까지 보내라고 요구했다. 결국 재정이 약했던 유구는 그 중 절반을 징납하고 나머지는 그에게 빌려서 채웠다.(하우봉

도착했을 때, 이미 유구의 사신도 거기에 있었고, 조선의 향도설은 중국에 퍼져있었다. 결과적으로 조선의 보고는 어느 정도 조선에 대한 명의 신뢰를 높여주었고, 성절사에게 준 황제의 칙서에는 섬라 등과 함께 왜적을 정벌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해 11월 초 김응남이 가져온 칙서가 조선에 도착하자, 조선은 칙서의 요구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서를 동지사(冬至使) 이유인(李裕仁) 편에 전달했다. 조선이 일본을 직접 정벌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조선이 일본과 지리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왜적들은 흩어진 섬들을 소굴로 삼아 끊임없이 배를 타고 약탈하는 반면, 조선은 항해에 익숙하지 못해 방어만 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宣祖實錄』, 1592/6/26: 8). 그와 함께 섬라와 유구와 관련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협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섬라와 유구의 경우 소방은 그 나라들이 모두 남해 가운데에 있다고 들었을 뿐이고, 아득히 먼 곳에 서로 떨어져 있어 선박이 통하지 않습니다. 거기가 얼마나 되는 지, 어느 방향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서로 소식을 전할 방법이 없습니다.”⁶⁾

조선의 주장은 절반은 사실이었다. 적어도 섬라의 경우 지난 200년 동안 조선과 서로 교류하는 나라가 아니었다. 조선 초 신숙주(申叔舟, 1417-1475)가 1443년 서장관으로서 일본을 다녀와서 해외의 나라들을 소개한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에도 일본·유구·대마도를 바다의 나라들로 다룰 뿐,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⁷⁾ 조현도 유구에 대해서는 국제협

외, 1999: 81; 양수지, 1993: 137-138) 일각에서는 유구정벌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히데요시는 군사를 조선에 집중하기 위해서 따르지 않았다(羅麗馨, 2011: 38). 결국 유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히데요시의 세력권 하에 있게 되었다.

6) “暹羅琉球小邦只聞其國俱在南海中而寫遠懸絕 舟船不通末詳道里幾何方維在何今無緣寄聲.”(『壬辰倭寇構釁始末志』, 『象村集』 卷五十六, 五)

7) 섬라와의 교류는 여말선초에 국한되었다. 당시 섬라는 아유타야 왕조(Ayutthaya, 1351-1767년)로서 대외활동에 활발했는데, 고려 말(1391년)에 나공(奈工)이 일본을 거쳐서 방문했고, 조선 초 1393년(태조 2년)에는 장사도(張思道) 일행이

력의 대상으로 언급했으나 섬라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사실 명으로서는 거기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오히려 조선을 떠보려는 목적이 강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조선이 일본에 협력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소문이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명의 요구는 단지 한 차례에 그쳤고, 조선이 그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을 때에도 더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황제의 칙서가 조선에 전달되었던 1591년 11월 양광총독 유계문(劉繼文)이 왜적에 대한 대비책을 제안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마카오의 포르투갈 군대를 동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즉 “왜적의 침략을 조목조목 마카오의 이적에게 깨우쳐서 관백의 머리를 참수해서 헌납하게 하여 상을 주는 것이 우환을 줄이고 나라를 평안히 하는 방책이다.”는 것이었다(『神宗實錄』, 1591/11/20: 3). 이에 황제는 논의대로 행하게 했으나, 더 이상 진척은 없었다.

2) 임진왜란 발발 이후

한편 임진왜란 발발 이후에도 명은 조선에게 제3국의 참전을 계속 제시했는데, 다만 명 자신이 이들을 동원하여 왜적을 친다는 내용이었다. 1592년 9월 2일 10만명 파견을 약속한 황제의 칙서가 조선에 전달되었는데, 칙서에서 황제는 동남아 국가들의 참전을 적시했다. 즉, “(명의) 동남연해 여러 진(鎭)에게 명령하고 아울러 섬라와 유구 등 나라들에게 선유하여, 병사 10만명을 모아 함께 일본을 정벌하여 그 근거지를 직접 칠 것이다. 왜적이 머리를 내놓게 하고 왜적의 소요가 잠잠해지도록 힘쓰라. 상(賞)과 작위가 크게 주어 질 것이니 짐은 무엇을 아끼겠는가?”고 말했다.⁸⁾ 물론 이것은 실제 추진될

국왕의 국서와 예물을 가지고 조선을 직접 찾았다. 태조는 그들에게 종3품에 해당하는 관직을 내리기도 했고, 돌아갈 때에는 회례사(回禮使)로서 배후(裨厚)를 보내 동행하게 했다. 1595년 배후가 귀국할 때 섬라는 다시 임득장(林得章)을 함께 파견했는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전라도 나주 앞에서 왜구의 습격을 받아 다수가 사망하고, 국서와 예물은 약탈당하고 말았다. 그 이후에는 양국간 직접적인 교류는 없었다.(하우봉, 2006: 195-198)

현실성이 있는 계획이라기보다는 황제의 권위와 조선에 대한 은덕을 강조하기 위한 측면이 강했다. 선조도 칙서의 그러한 내용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칙서를 가져온 명의 사신 설번(薛藩)을 선조가 접견한 자리에서도 단지 명의 대규모 병력과 식량 지원에 관해서만 논의되었다. 어쨌든 당시 평양탈환도 실패하고 명의 군사적 지원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선에게 이러한 칙서가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그 이후에도 동남아 국가들의 참전에 대한 언급은 계속되었다. 1592년 11월 15일 경략 송응창(宋應昌)은 조선정부에 격문을 보냈다. 그는 그해 9월 말 조선원정을 총괄하는 경략으로 임명되어 그간 각지에서 필요한 군사와 식량을 모집했고, 조선도 초기와 달리 명에 대한 군사지원 요청에 보다 적극적이었다. 그는 점차 원정준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조선에 자문을 보내서 원정과 관련된 협조를 요청했다. 여기서 그는 제3국과의 협력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식화했다. 즉, “(명의 황제가) 이미 복건, 광둥 장수들에게 명령하기를, 섬라와 유구 여러 나라들의 군사들과 연합하여 전함을 몰고 돛대를 올려 일본 소굴을 직접 치도록 했다....”는 것이다(『宣祖實錄』, 1592/11/15: 4).

1592년 가을 조선에 대한 대규모 원정군의 파견을 위한 준비와 함께 명은 왜적과의 강화를 동시에 추진했다. 이를 위해 심유경(沈惟敬)이 8월 말 평양에 들어가 왜적과 협상을 벌였다. 그가 왜의 진영에 보낸 서찰에는 애매하게나마 국제적 연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황제가) 병부에 조칙을 내려 빨리 선부(宣府)·대동(大同)·계주(薊州)·요동(遼東)·절강(浙江)·직례(直隸)의 수군과 육군 백십만 명을 속히 일으키고, 또한 해외 여러 나라에 격문을 보내어 밖에서 호응을 약속하여 너희들의 소굴을 뒤엎도록 했다.”는 것이다(『宣祖修政實錄』, 1592/11/1: 1). 사실 전쟁 초기 국제협력 가능성은 상대를 제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평양의 왜적에 대한 군사적 공격이 임박한 시점인 1593년 1월 초 원외랑(員外郎)⁹⁾ 유황상(劉黃裳) 등이 의주의 선조를 찾았을 때도 그는 “(황제가)

8) 復勅東南邊海諸鎮，竝宣諭琉球、暹羅等國，集兵數十萬，同征日本，直搗巢穴，務令鯨鯢授首，海波晏然。爵賞茂典，朕何愛焉(『宣祖實錄』, 1592/9/2: 1)

유구, 섬라 등 나라에 명령하여 왜적의 소굴을 소탕하게 했다.”(『宣祖實錄』, 1593/1/6: 2)고 큰소리쳤다. 그가 이 말을 한 것은 며칠전 선조의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였다. 선조에 의하면 왜적은 원래 명을 침범하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조선의 협조를 요구했다. 이에 조선이 명에 대한 의리로 그 요구를 거절했고, 그 결과 왜적이 조선을 침략했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유험상은 황제가 속국에 대한 은혜로 군대를 내어 조선을 구원하고 있고, 심지어 유구와 섬라의 군사까지도 동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험상 등은 나중에 선조에게 보낸 자문에서도 유사하게 두 나라의 군대동원을 언급했다. 즉, 절강과 복건의 군사들이 섬라와 유구의 군사들을 이끌고 왜적의 소굴을 직접 공격한다는 것이다(『宣祖實錄』, 1593/3/20: 7). 이 자문은 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군사적 대응을 요구하는 조선에 대한 답변이었다. 당시 조명은 평양 수복으로 인해 기세를 잡았지만, 명군은 더 이상 남하를 하지 않고 왜와 강화를 꾀하고 있었다. 조선의 끈질긴 요구에 대해서 유험상은 명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의미로 그러한 말을 했다.

명군이 평양전투에서 왜적에게 일격을 가함으로써 전세를 역전시킨 이후에도 제3국의 참전은 조선에 계속 전달되었다. 1월 23일 선조가 접견했던 지휘(指揮) 황응양(黃應陽)은 “섬라가 이미 10만명의 군사를 징발하여 일본을 정벌하러 갔다.”고 말했다(『宣祖實錄』, 1593/1/23: 3). 그와 비슷한 시점인 3월 말 경 영의정 최홍원도 의주에서 송응창 경략으로부터 “황제가 곧 섬라와 유구의 수군 20만명에 명하여 일본의 소굴을 치게 하실 것이며, 수군은 내호령을 기다려 움직일 것이다.”는 말을 들었다(『宣祖實錄』, 1593/4/3: 3). 맥락은 유험상 등의 자문과 비슷했다. 당시 평양탈환 이후 조정은 명군의 신속한 남하를 요청하고, 명의 지도부는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송경략의 말은 명의 위세와 왜적 소탕에 대한 의지를 확인함으로써 조선의 조급함을 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9)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중앙부서 부국장, 중국에서는 副司長에 해당한다.

4. 섬라의 사례

1) 배경과 논의

사실 명이 조선에 대해서 동남아 국가들의 동원을 일방적으로 제기한 듯 하지만, 실제 심각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당시의 자료는 섬라에서 군사를 동원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섬라는 당시 조선 다음으로 명과 긴밀한 조공책봉 관계에 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曲明东, 2004: 70-71).

『명사』의 「소언전(蕭彦傳)」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다. “일본이 조선을 유린했을 때 마침 섬라가 조공을 바쳤다. 섬라의 사신은 구원에 참여하겠다고 청했는데, 이에 (병부상서) 석성(石星)이 군사를 동원하여 일본을 치라고 명령했다. 소언은 섬라는 서쪽 끝에 있고 일본에서 1만리인데 어떻게 큰 바다를 건널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런 논의를 그만둘 것을 청했다. 석성이 고집하여 소언의 말에 따르지 않았다. 얼마 지났으나 섬라의 군사들이 나오지 않았다.”¹⁰⁾ 『명사』의 섬라 관련 부분에서는 “만력... 20년(1592년) 일본이 조선을 격파하자, 섬라가 군사를 몰래 보내서 일본을 직접 쳐서 그 뒤를 견제하겠다고 요청했다. 중추(中樞) 석성이 그것을 따를 것을 주장했으나, 양광총독(兩廣總督)¹¹⁾ 소언(蕭彦)이 불가함을 견지하여 이에 그만 두었다.”¹²⁾

위의 두 기록은 섬라 사신이 일본을 직접 치겠다고 요청했고 이에 병부상서 석성이 찬성했지만, 양광총독 소언이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여 결국 포기했다고 정리될 수 있다. 여기서 섬라 사신이 과연 자발적으로 요청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10) 日本躡朝鮮。會暹羅入貢，其使請勤王，尚書石星因令發兵搗日本。彥言暹羅處極西，去日本萬里，安能飛越大海，請罷其議。星執不從。既而暹羅兵卒不出。(『明史』卷227)

11) 총독양광도어사(總督兩廣都御史), 속칭 양광총독(兩廣總督).

12) 二十年，日本破朝鮮，暹羅請潛師直搗日本，牽其後。中樞石星議從之，兩廣督臣蕭彥持不可，乃已。(『明史』卷324，外國五 暹羅)

구체적인 과정은 소언의 회고에 나와 있다. 그에 의하면, 1592년 11월 2일자 병부의 공문에서 섬라의 사신이 군대를 내어 왜적을 소탕하기를 자원했음이 보고되었고, 황제가 그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지시했다. 황제는 기본적으로 사신의 충심을 받아들이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섬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섬라의 사정을 잘 아는 양광총독에게 공문을 보내고, 동시에 사람을 섬라에 파견하여 섬라 왕의 회답을 받아서 칙서를 내려 시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황제의 추가적인 지시를 받은 소언은 1월 초 상소를 보내서 보다 철저한 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중실록』 1593년 1월 6일자 기사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총독양광도어사 소언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섬라는 서쪽 끝에 위치하여 일본에서 1만여리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 조공하는 사신이 병부에 근왕(勤王: 제후로서 군대를 동원해서 천자의 정벌을 돕겠다는 의미 - 필자)을 하고자 청했습니다. 병부가 재차 군대를 발동하여 일본을 직접 치도록(섬라에게) 명했습니다. 생각건대 바닷길이 멀고 만이(蠻夷, 섬라)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기 때문에 섬라의 요청을 중지시켜야 합니다. 병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입니다. 즉, ‘관백이 적의 하인으로써 지위를 찬탈했고, 잔인하고 간교하게 여러 나라들을 기만했으며, 지금 조선을 다시 점거하고(명나라) 내부의 침범을 몰래 도모하고 있으며 천자의 군대를 수고롭게 하고 있다. 이에 섬라의 사신이 왜적의 무도함에 분개하여 근왕의 충성을 바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의리를 돈독히 하고 있다.’

(그렇지만) 신 등은 단지 사람을 보내서 한편으로 먼 나라를 격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왜적들을 견제하기를 청합니다. 병법에 ‘다양한 방책으로(적이) 착오하게 만드는 전략¹³⁾이 있는데, 애초에 당당한 중국이 아니라 이 섬나라(섬라)의 힘에 의존하는 방법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에 대한 황제의) 지시에서는 섬라의 충성을 치하할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중요시하여 반드시 독신(督臣, 소언 자신을 말함)의 논의를 기다려 그 회답을 받은 후에 비로소 황제의 칙령을 반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지시에는 깊

13) ‘多方以誤之’ 이 말은 병법서 『당태종과 이위공 문답(唐太宗李衛公問對)』에 나오는 말이다. 원문 전체로는 바둑에서와 같이 한 번의 실수가 승패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은 지식과 멀리 보는 통찰력이 은연중에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독신이 군사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무더운 연해 나라의 상황을 손바닥처럼 모두 알고 있으니 조사하여 방안을 제안하게 하고, 본부에서 보낸 군사모집 관원의 말을 다 듣고 어떻게 할지 따져야 합니다. 만약 (섬라의 사신이) 이미 그 나라에 도착했다면 곧 충직한 역관에게 책임을 지워 격문을 보내 섬라 국왕에게 (황제의) 지시를 받들어 수군을 정비하여 (명에) 회답을 보내고 황제의 칙서를 기다려 도착하는 날 준행하게 하라.'고 선유해야 합니다. (황제가 그 말을) 따랐다."¹⁴⁾

이 문장에는 몇 가지 사실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테면, 섬라의 마음을 헤아리기 힘들다는 것이나, 당당한 중국 스스로 하지 않고 섬라의 힘을 빌리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사해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소언은 섬라와 가까운 양광의 책임자로서 섬라의 사정을 비교적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황제는 소언의 제안을 받아들여 섬라의 참전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도록 했고, 소언은 그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사결과를 보고했다(「夷心難測借兵宜慎疏」, 『制府疏草』 卷下, 三十一-三十三). “만인의 마음은 헤아리기 어려우니 군대를 빌리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제목이 말해주듯 그는 섬라의 참전에 회의적이었다. 그의 반론은 특히 광동인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대변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능한 한 소언의 언어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실적인 가능성의 문제이다. 그 가능성이란 실제 섬라에서 일문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지, 마찬가지로 중요하게는 섬라가 실제 그렇게 할 것인

14) 總督兩廣都御史蕭彥奏暹羅居極西去日本萬餘里近有貢使請於兵部願效勤王兵部覆令發兵直搗日本又念海道曠遠夷心叵測要行停請兵部議關白以賊廝篡奪淫虐奸狡憑陵諸國今復占據朝鮮潛圖內犯致屢王師乃暹羅貢使憤茲不道既效勤王之忠亦篤恤鄰之義臣等特為請遣一以風厲遠邦一以牽制倭眾蓋兵家固有多方以誤之者初非以堂堂中國特茲島夷之力為也 明旨既嘉其忠義又重其事機必待督臣酌議取彼回文方可頒勅深識遠見隱然具在今督臣坐鎮炎荒海邦機宜悉如指掌合令查照題議事理將本部差去號召官員悉聽酌量行止如已達彼國即便責差忠勇通官傳檄宣諭暹羅國王遵照 明旨整飭舟師回文奏報另聽勅書至日遵行從之(『神宗實錄』, 1593/1/6: 2)

지와 관련된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앞서 『명사』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이 상소문에서도 섬라에서 일본까지 1만 1천리나 떨어져 있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한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섬라는 중국에 대해서 그리 충성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섬라는 조공을 한다고 해도 ‘기한 약속을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고, 만력시기에는 원년에 시작했으나 만력 19년(1591년)이 되어서야 두 번째 조공을 했다. 섬라는 또한 평소 조선처럼 중국에 충성스럽지도 않았다.’ 따라서 섬라가 중국을 위해서 힘을 쓸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사실 출병은 사신의 입에서 나왔을 뿐이니 왕의 의사는 아닌 것이고, 더욱이 사신의 말조차도 통역관들이 공명심에서 전했을 수도 있다. 섬라가 아무리 성의껏 돕는다고 해도 많아야 3천명에서 5천명, 적으면 2,3천명에 불과할 것이다. 만약 섬라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약속을 어기고 출병하지 않으면 단지 중국만 허약함을 보여주게 된다. 중국이 허약하다고 간주되면 주변 오랑캐들이 중국을 넘보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섬라의 군대를 빌릴 경우 결과이다. 소언에 의하면, 섬라가 실제 군대를 보내서 일본을 공격하여도 더 큰 문제가 있다. 역사적으로 주변 민족들을 끌어들이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졌던 사례들이 많다. 서주가 적(狄)을 끌어들이어 정(鄭)나라를 공격했다가 결국 수도를 잃어버렸고, 당(唐)이 회홀(回紇)에게, 송이 금과 원에게 마찬가지로 반복된 실수를 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섬라의 군대를 끌어들이는다면, ‘앞문으로 호랑이(왜적)를 막고, 뒷문으로 이리(섬라)를 들이는 것’과 같다. 그가 듣기로 섬라의 힘이나 교활함은 일본보다 덜하지 않았다. 일본과 전쟁에서 섬라가 불리하면 명은 지원여부를 고민해야 할 것이고, 섬라가 이긴다면 일시 왜적의 공격을 늦출 수는 있으나 그 후에는 섬라의 끝없는 보상 요구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나아가 섬리는 중국을 가볍게 보고, 새로운 우환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과정상의 문제이다. 소언에 따르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섬라에서 일본에 가려면 수군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수군은 광동의 주요 변화한 지역들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들에게 식량을 요구하게 될 뿐 아니라 도시에 들어와 백성들을 약탈해도 막을 수 없다. 또한 연해의

무뢰배들이 그 병사들 사이에 들어가 패거리를 끌어들이 수 있다. 광동의 마카오 등에는 이미 통제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해상을 장악하고 있다. 거기에는 섬라, 포르투갈, 말레이시아 등 이민족들과 중국인 도망자들도 있다. 이들이 섬라의 군대동원을 계기삼아 어떤 지도자를 중심으로 갑자기 광동으로 들어오면 막을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거지를 갖게 되면 장기적인 해가 될 것이다. 결국 섬라의 병력을 빌리는 것은 유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해하다.

그 외에도 소언과 다른 시각에서 섬라에 대한 과병에 회의적인 경우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예부상서 우신행(于愼行)은 섬라에서 군사를 빌리는 제안에 대해서 “망망대해에 섬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섬라의) 군사를 모아 (일본을) 정벌하지는 것은 가소롭다.”고 주장했다(『萬曆野獲編』, 兵部「暹羅」). 북경과 광동에서의 동남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우신행의 말은 섬라의 동원이 타당성 여부를 떠나 그리 현실성이 크지 않았음을 내포한다.

그렇다면 섬라 내부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당시 섬라는 아유타야 왕조(1351-1767)였다. 16세기 중반 버마의 두 차례 대규모 침략을 받은 섬라는 1564년 항복한 뒤에 그 속국으로 전락했다. 1584년 나레수안(Naresuan)이 독립을 선포한 뒤에는 버마의 계속되는 공격을 물리칠 수 있었다. 결국 1593년 침략을 주도해왔던 버마의 후계자 밉이스와(Mingyi Swa)를 죽이고 난 뒤에 비로소 버마의 위협은 약화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나레수안이 버마에 대한 전쟁을 시작하여 결국 17세기 초까지 계속되었다. 따라서 섬라의 군사적 지원 제안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Wood, 1993: 140-141).

2) 조선의 대응

그런데 군사지원을 요청하는 진주사로 정곤수가 1592년 9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북경에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그는 섬라의 사신을 만났다.¹⁵⁾ 심지어

15) 『신종실록』에도 1592년 10월 13일 기사에서 섬라의 사절 27명이 조공을 바치니 관례대로 관대(冠帶)을 상으로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神宗實錄』(1592/10/13: 1).

어 석상서는 양국의 사신들을 동시에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기도 했다. 9월 28일 석상서를 방문했던 시점에서 정곤수의 통사가 성이 이(李)씨인 섬라국의 통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한다. 즉,

“석상서가 우리를 두 번이나 부른 것은 필시 섬라에게 일본을 협공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화살은 사람을 뚫지 못하고, 검은 날 카롭지 못하며, 총알은 꿰뚫지 못하니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군대로 왜 적을 공격할 수 있겠는가? 광둥에서 유구(琉球)를 지나 우리나라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오른쪽에 있고, 일본은 왼쪽에 있다. 그 사이에는 긴 모래벌판이 있어 배로 갈 수 없으며, 반드시 광둥에 이르러야 일본에 도달할 수 있다. 지금 귀국을 침입한 자들은 모두 복건사람일 뿐이다. 왜적이 어떻게 길을 알아 (조선을) 침략하겠는가?”¹⁶⁾

통역관의 말에는 몇 가지 의미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을 침략한 자들이 일본이 아니라 명나라의 복건 사람이라는 주장도 흥미롭지만, 석상서가 섬라국으로 하여금 일본을 직접 공격할 것을 종용했고, 섬라는 그런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명사(明史)』와 『신종실록』 등의 기술처럼 섬라가 주도적으로 제안하기보다는, 병부상서 석성(石星)이 먼저 요구했고,¹⁷⁾ 섬라에서 그것을 차마 거절하지 못했던 것이다. 당시 섬라는 명과의

16) 尙書再招我的者。必是教暹羅挾攻日本之意也。本國其奈箭不入人。劍不利割。鐵丸不洞。何哉。以此兵。可以攻倭耶。自廣東過琉球到俺國。俺國在右。日本在左。其間有長沙。不能行舟。必也到廣東。可以抵日本。今日作賊於貴邦者。皆福建之人耳。倭子安知道路而入寇耶云云(『赴京日錄』(1592/9/28), 『栢谷先生集』卷之三, 九-十) 사실 국의 논문들을 물론이거니와 국내에서 비교적 최근 임진왜란시 태국의 참전 문제를 다룬 유일한 논문(조흥국, 2009)에서 이 자료가 활용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마치 명의 입장과 같이 태국이 파병을 지원했던 것으로 기술되고 있다.

17) 한 연구에 의하면, 섬라의 파병과 관련하여 민간인이었던 정봉기(程鵬起)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석성에게 ‘섬라의 군대를 빌리자’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한다. 그는 많은 자금과 관직까지 하사받아 1592년 말 섬라 사신과 함께 출발했으나, 결국 실현하지 못했다. 그가 바다에서 떠돌다가 출발하지 못했다는 설도 있고, 점성(占城)까지 갔으나 명 조정의 소언과 재야에서 반대로 인해 정책을

조공관계에서 상당한 상업적 이익을 얻고 있는 상황이었다.

같은 시점에서 석상서는 정곤수 일행을 접견하면서 동남아 국가들의 참전을 직접 언급했다. 즉 “복건, 광둥, 절강 등 남부지방 군사들에게 유구, 섬라 등 국가들과 약속하여 내년(1593년) 4월 함께 일본을 직접 치고, 이어서 귀국(조선)으로 향하여 여러 도(道)에 있는 왜적을 소탕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이었다(『赴京日錄』, 『栢谷先生集』 卷之二, 二十三). 그렇지만 앞서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섬라의 사신이 도착한 뒤 몇 달이 지난 시점에서조차 명 조정은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고, 양광총독 소언을 통해서 상황을 알아보게 하고 있었다.

어쨌든 12월 초 귀국한 정곤수는 명의 공식적인 입장을 조정에 보고했다. 즉, 섬라의 사신이 조선을 구하기를 청했고, 명 조정이 그것을 허락하여 이듬해, 즉 1593년 봄에 군대를 동원, 일본으로 가서 정벌하기로 했다는 것이다(『宣祖實錄』, 1592/12/8: 2). 추측컨대 실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정곤수는 통사와의 대화내용도 보고했을 것이다. 정곤수의 공식적인 보고에 대해 선조는 물론 그를 수행했던 서장관 심우승(沈友勝)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선조는 “원 세조도 (일본을) 토벌하지 못했는데, 섬라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고 대답할 뿐이었다.

사실 조선은 당시 해양 활동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고려 말에 극성했던 왜구의 침탈 때문이었다. 조선 초에는 국가가 재정비되면서 그에 대한 대응능력이 커지고, 나아가 1396년(태조 5년) 1419년(세종 원년) 왜적의 소굴까지 소탕하는 작전을 벌임으로써 왜구의 침략은 점차 주춤해졌다. 그럼에도 왜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해양활동을 금지시켰다. 그것은 명나라가 동일한 이유에서 자국에 실시한 해금정책과도 연결되었다. 주지하는 것처럼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중국과의 인적교류(상인이나 사신)는 해로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제 해금정책을 통해 명과의 교통은 육

바뀌어서 그들 소환했다는 설도 있다(周郢, 2017). 어쨌든 그는 이듬해 1593년 5월 병과급사중 허홍강(許弘綱)에 의해 관직을 삭탈하도록 탄핵되었다(『神宗實錄』, 1593/5/21: 7). 이 또한 섬라의 파병안은 섬라 사신의 자원에 의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해준다.

로에 국한되었고, 따라서 해양활동은 크게 위축되었다. 더욱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념적으로도 중화질서 중심으로 변모했다. 동남아 국가들은 남양(南洋)이외에도 서남만(西南蠻), 남만(南蠻) 또는 남번(南番) 등 전통적인 중화질서의 개념으로 표현되었다.

5. 건주여진

1) 배경과 내용

1592년 9월 중순 조선은 뜻밖의 소식을 명, 구체적으로는 요동도사로부터 받게 되었다. 당시 왜적이 평양을 점령한 지 거의 3개월이 지난 상태였고, 7월 중순 소규모 명군이, 그리고 8월 초에는 조선이 자체적으로 평양수복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뒤였다. 조선은 요동의 군사책임자들에 국한된 소극적인 군사요청의 입장에서 벗어나 북경의 명 조정에 대한 본격적인 청병활동을 막 시작했다. 마침내 8월 25일 대사간 정곤수(鄭崑壽)가 대규모 군사지원을 요청하는 진주사로서 북경으로 출발했다. 마침 명도 그 시점에서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기로 자체적으로 결정했다. 그것은 이제까지 정탐적 성격의 소규모 군대를 보냈던 것에서 정책적 변화를 의미했다. 그리하여 정곤수가 떠난 뒤 일주일만 지난 9월 2일 문무대신 2명이 이끄는 대군 10만명을 파견하겠다는 황제의 칙서가 도착했다.

이러한 분위기 하에서 요동도사의 자문에 건주위(建州衛)의 누르하치(老乙可赤, 努爾哈赤)가 조선에 3만명의 군대를 보내 구원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건주위에 사는 공이(貢夷)와 마삼비(馬三非) 등이 제안하기를, 자신들이 누르하치에게 말해서 조선을 돕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참전의 추가적인 이유로 왜적이 조선을 침략했으니 반드시 건주위도 침범할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들에 의하면, 누르하치 휘하에는 기병 3~4만명과 보병 4~5만명이 있고, 모두 정예부대로서 전투경험이 많으며, 자신들이 제안하면 누르하치는 왜의 정벌에 참여할 것이다. 그 자문은 명의 병부가 요동도사를 시켜 조선에 전달했다.

그 제안에 대해서 명의 병부도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다. 즉, 그 충의는 가
상하지만 ‘오랑캐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고 믿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러
면서도 병부는 요동의 군사기구에 문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엄격하게 제약을
가해서 소요를 일으키지 않게 하고,’ ‘조금이라도 방해를 한다면 중단시킨다.’
는 엄격한 조건하에서 누르하치의 제안을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宣祖實錄』,
1592/9/17: 4).

위의 제안이 누르하치 자신에 의해 직접 나온 것은 아니지만, 명은 사실상
그의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 여진의 상황은 어떤가? 16세
기 말 당시 만주에는 여진족이 거주했다. 이들은 통합적인 국가가 아니라 여
러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명은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200여개의 위
(衛)와 소(所)를 설치했다. 이러한 기구들에는 여진족 실력자들이 임명됨으
로써 일종의 자치가 인정되었다. 이들은 크게 해서위(海西衛)·건주위(建州
衛)·야인위(野人衛)로 분리되었고, 그 가운데 건주위는 조선과 국경을 접했
다. 건주위는 명뿐만 아니라 조선에 대해서도 주종관계에 있었다. 누르하치
는 주변지역을 통합하면서 점차 실력을 길렀다. 그와 함께 조선과의 주종관
계도 차츰 부정되었다. 명도 이들의 간헐적인 국경소요로 우려가 커지고 있
었다. 1588년 누르하치가 마침내 건주여진을 통일하고, 주변의 몽고족과 다
른 여진족을 차례로 복속시켜나가고 있었다.

2) 조선의 반응

이러한 상황에서 건주여진의 제안은 조선의 입장에서는 매우 우려되는 일
로 간주되었다. 그 소식을 직접 전한 좌의정 윤두수(尹斗壽)는 “그렇게 된다면
조선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고 단언했다. 특히 그 내막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조선으로서는 매우 고민이 아닐 수 없었다. 당시 명은 한편으로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왜적과 강화를 추진하고 있었
다. 석성의 명을 받은 심유경(沈惟敬)이 8월 말 평양에서 왜적과 담판을 한
뒤 불과 며칠 전 되돌아왔다. 명이 왜적의 소탕에 직접 나서지 않을지도 모
를 일이었다. 예조판서 윤근수(尹根壽)가 중국이 자신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누르하치를 시켜 왜적을 제거하려 한다고 말한 것은 그런 맥락에서였다. 이에 요동에 급히 자문을 보내서 미리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되었다.(호조 판서 이성중李誠中) 그럼에도 일단 황제가 칙서로 누르하치의 지원을 명한다면 조선으로서는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대사헌 이덕형) 따라서 명의 군대가 오기 전에 조선의 병력만으로 거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되었다(『宣祖實錄』, 1592/9/14: 2)

결국 병부의 자문에 대해서 조선정부는 회답에서 병부가 제안했던 통제된 파병도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 이유는 조선과 건주위는 오랫동안 서로 원한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진은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여진은 겉으로는 순수하게 조선을 돕는 척하면서도 실체는 조선을 공략하려는 계획을 품고 있다는 것이었다(『宣祖實錄』, 1592/9/17: 4).

위의 회의에서는 매우 단편적인 의견만 제시되었지만, 다른 곳에서 해당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람은 유성룡이었다. 그는 당시 올린 한 시무책에서 역사적 사례를 빌어 그 위험성을 강조했다(『陳時務筭』, 『懲毖錄』 卷三, 一-二). 그는 당나라가 안록산의 난을 평정하지 못해 회홀(回紇, 위그르족)과 토번(吐蕃, 티벳족)에게 군사를 구걸했다가 대대로 그들의 화를 입었던 것을 상기시켰다. 더욱이 최근 몇 년 조선이 국경을 넘어와 인삼을 채취하는 여진족을 잡아 죽인 것에 대해서 여진은 상당히 원한을 품고 있었다. 유성룡의 판단으로 조선은 지금 여진의 진퇴를 통제할 상황이 아니었다. 혹시 그들이 대규모 군대로 들어온다면, “명의상으로는 구원한다지만 그 의도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물론 그들이 좋은 말로 우리를 시험하는 마당에 우리도 좋은 말로 대할 필요는 있었다. 따라서 엄중한 말로 거절하여 그들의 분노를 사서는 안되었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유성룡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변경의 조선장수를 시켜서 “우리과 그대들은 대대로 이웃인데, 지금 왜적이 난을 일으키자 (그대들이) 와서 구해주고자 하는데 그 뜻은 매우 아름답고, (명나라) 조정도 (그 소식을) 들으면 당

연히 가상하다고 여겨 상을 줄 것이다. 다만 왜적의 우환은 지금은 이미 평정되어 가는 중이니 그대들이 멀리까지 와서 수고할 정도가 아니다.”고 함으로써 군사과건을 그칠 것을 요청해야 한다. 명 조정에 문서를 보낼 때도 여진과 대대로 원수이고 서로 단절된 듯한 말을 쓰지 말아야 한다. 은밀한 말로 그 제안을 거절하면서 그 해로움이 작지 않다는 우려를 고해야 하며, 너무 드러나게 해서 적대관계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당시의 문헌에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으나, 사실 해당 시점에서 여진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앞서 본 것처럼 10만명의 과건을 약속하는 황제의 칙서가 10여일 전 도착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여진의 군대가 들어온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제까지 여진을 회유와 강경책으로 어렵게 지켜온 조선으로서는 북방변경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 임진왜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여진과의 계속적인 갈등으로 인해 조선은 남왜북로(南倭北虜), 즉 남쪽은 왜적, 북쪽은 오랑캐라는 양쪽에서의 우환의식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다(민덕기, 2009). 이것은 조선이 여진을 왜적 이상으로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했음을 보여준다.

명의 입장에서 여진의 참전은 많은 문제를 내포했다. 앞서 섬라의 군대를 이용하는 문제에서 지적인 것처럼 외국군의 동원은 그 차제로서 정치적·현실적 문제들을 내포했다. 더욱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갈등적인 관계에 있는 여진의 참전은 섬라보다도 더 복잡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진족의 군사적 지원 문제에 대해서 명은 조선에게 온건하게 표현했으나, 분명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았다. 나중에 대학사 왕석작(王錫爵)은 1593년 2월 말의 한 상소문에서 그에 대해 언급했는데, 당시 벽제관 전투 이후 명 지도부는 전투에 소극적인 분위기였다. 왕의 판단으로는 대치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명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군대를 철수하지 말고, 오히려 증강시켜야 한다. 그에 의하면,

“동로(東虜: 여진)가 틈을 엿보아 움직인다면, 조선을 대신해서 (왜적과의) 전쟁을 맡게 되고 (중국) 내지는 편할 날이 없게 될 것입니다. 신들은 그것

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미 대군이 출동했으니 철수하기는 어렵고, 오로지 군사를 증원하고 군량을 보태서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은덕을 베풀어서 인심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외적으로는 왜적과 동로의 모략을 타파할 수 있고, 대내적으로는 장령들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을 것입니다.”(『擬進征東勅諭疏』(1593/2/29), 『王文肅公全集』卷十, 十五-十六)

요컨대 왕에 의하면 여진족의 전쟁 개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명은 조선에서 왜적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했다. 여진의 참전이 더 이상 추진되지 않았던 것은 조선의 강력한 반대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조선의 거부에 대해서 명도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Ⅲ. 결론

이제까지 임진왜란 발발 전후 증대하는 히데요시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과 명에서 제기되었던 제3국과의 협력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대상은 유구와 섬라, 그리고 전주여진이었다. 이 국가들은 임진왜란의 국제적 성격을 주장하는 연구에서도 크게 고려되지 않았다. 임진왜란이 분명 일본의 조선침략에 그치지 않고, 당시 동아시아 질서의 중심국가인 명의 대규모 군사적 개입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국제적 성격을 말할 수 있고, 실제 그 래왔다.

그런데 당시의 문헌에 충실하다면, 보다 넓은 범위의 국제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은 전쟁에 직접 가담하지 않는 국가들이 적지 않게 등장하기 때문이다. 시각에 따라서는 국제협력은 이이제이(以夷制夷)와 같은 전통적인 병법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조현도 유구 국왕에게 보낼 것으로 상소문의 부록에 첨부한 편지에서 전국시대 위(魏)나라가 한(韓)나라를 쳤을 때, 제(齊)나라가 위나라 수도 대량(大梁)을 공격하는 것처럼 하여 위나라를 물리친 사례를 들고 있다.(『擬致書於琉球國王』, 『重峰集』卷八, 十四-十六). 히데요시도 조선과 유구에 대해서 유사한 전략을 구사했다. 1591년 가을 요동

을 통해 명 조정에 보고된 한 조선의 진주문은 “유구가 일찍이 (왜적에게) 귀복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귀복했다고 하여 조선을 속이고, 조선이 굴복하지 않았는데 굴복했다고 유구를 속였다.”고 언급하고 있다(「陳倭情奏文」(辛卯, 1591), 『西厓先生文集』卷三, 七).

그럼에도 제3국의 참전을 단순한 술책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다. 먼저 주목할 것은 참전 논의의 진지함이다. 섬라군대의 동원과 관련하여 명 조정은 장기간의 검토와 논의 과정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실행 과정은 문헌상에 잘 나타나 있지 않으나, 사람을 현지에 보내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건주여진이 명을 통해 파병을 제안했을 때, 조선의 조정에서는 열 번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중요하게는 섬라와 건주여진이 참전은 명과 조선 스스로 중지하거나 거부했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권력관계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일본의 침략도 그러하지만 그 과정에서 특히 섬라와 유구 등 동남아 국가들이 대외정책의 일부로 들어온 것은 명과 조선에게는 분명히 새로운 현상이었다. 나중에 나타난 것이지만 동아시아 질서 전반에 변화의 조짐들이 적잖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제3국과의 국제협력 논의는 부분적으로 그것을 반영했다. 명이 조선에 몰두하는 동안, 누르하치는 실력을 키워 한 세대가 지난 다음에는 명을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조선과 일본과의 중재를 담당했던 대마도는 임진왜란이 종료된 후 더 이상 독립적인 실체가 되지 못했다. 명의 조공국가였던 유구는 1609년 일본의 침략을 받으면서 사실상 흡수되었다. 유구는 조공무역을 활용하기 위해서 외형적으로만 중국과의 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했을 뿐이었다. 조선 정벌의 실패 이후에도 일본은 대외팽창의 야욕을 포기하지 않았다. 새롭게 득세한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는 “조선이 조공을 하고, 유구가 칭신(稱臣)하며, 안남·교지·점성(占城)·섬라·여송(呂宋: 필리핀의 가장 큰 루손Luzon섬)·서양·간포채(東埔寨: 캄보디아) 등 만이의 군장과 추수(酋帥)가 각각 (칭신)하지 않을 자가 없기”를 바랐다(진상승, 2014: 309-314).

그에 반해 명과 조선은 당시의 상황을 새로운 국가관계나 국제질서의 출

현으로 이해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그들은 중화질서의 규범적 요구를 따랐다. 조선은 기본적으로 종주국인 명에 대한 의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적극적인 협력관계는 모색하지 못했다. 제3국과의 교류나 접촉은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명을 통하거나 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국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3국과의 쌍방에 의한 협력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명의 경우에도 제3국에 대한 협조요청 자체가 제국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렇다고 중화질서는 그 구성원들이 침략을 받았을 때, 자발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만큼 공고하지도 않았다. 자발적 지원요청은 - 건주여진에 서와 같이 - 오히려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제3국과 국제협력 방안은 이행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두 나라의 국제질서 관념도 변화시키지 못했다. 그것은 약 250년 뒤 서양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일본이 다시 동아시아 질서에 충격을 가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萬曆疏鈔』
- 『明史』
- 『象村集』(申欽)
- 『神宗實錄』
- 『栢谷先生集』(鄭崑壽)
- 『宣祖實錄』
- 『王文肅公全集』(王錫爵)
- 『隱峯全書』(安邦俊)
- 『懲惑錄』(柳成龍)
- 『制府疏草』(蕭彦 撰)
- 『全浙兵制考』(侯繼高)
- 『亂中雜錄』(趙慶男)

- 김경태(2014), “임진전쟁기 강화교섭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경태(2018), “임진전쟁기(1594년) 조선군과 일본군의 이면교섭 연구 - 『泰長院文書』 수록 兩軍 書狀을 중심으로 -”, 『韓日關係史研究』, 제61집, 125-172쪽.
- 김문자(2010), “임진왜란기의 조일관계”, 『동아시아 세계와 임진왜란』, 한일 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편, 서울: 경인문화사, 123-155쪽.
- 김문자(2005), “임진왜란기 일·명 강화 교섭의 파탄에 관한 一考察 - 사명당(松雲大師)·加藤清正 간의 회담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8권 3호(통권100호), 225-254쪽.
- 김한규(2007), “임진왜란의 국제적 환경 - 중국적 세계질서의 붕괴”,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정두희·이경순 엮음, 서울: 휴머니스트, 285-315쪽.
- 김한신(2017), “임진왜란기 강화교섭과 유성룡의 외교활동(1593.4-1595.7)”, 『민족문화연구』, 제77호, 213-255쪽.
- 민덕기(2009), “임진왜란기 조선의 북방 여진족에 대한 위기의식과 대응책 - ‘南倭北虜’란 측면에서 -”, 『韓日關係史研究』, 34집, 179-216쪽.
- 박인호(2018), “임진왜란기 백곡栢谷 정곤수鄭崑壽의 정치·외교 활동”, 『국학연구』, 제37권, 207-142쪽.
- 손종성(1990), “壬辰倭亂時 對明外交-請兵外交를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제14집, 141-177쪽.
- 이계황(2013), “임진왜란과 강화교섭 - 쓰시마번과 고니시 유키나가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제34집, 85-110쪽.
- 이숙경(2011), “조선 선조대 柳根의 대외관계 활동”, 『한국인물사연구』, 제15집, 121-153쪽.
- 이완범(2002), “임진왜란의 국제정치학 - 일본의 조선분할요구와 명의 對조선 중주권 확보의 대립, 1592~1596”, 『정신문화연구』, 25권 4호(통권89호), 89-137쪽.

- 李鉉淙(1974), “壬辰倭亂時 琉球·東南亞國人之來援”, 『일본학보』, 제2권, 68-95쪽.
- 이철성(2007), “李德馨의 임진왜란 중 외교 활동”, 『한국인물사연구』, 제7집, 1-28쪽.
- 정두희·이경순(2007), “16세기 최대 전쟁, 임진왜란”,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정두희·이경순 엮음, 서울: 휴머니스트, 13-22쪽.
- 정역기(2007), “白沙 李恒福의 외교 활동”, 『한국인물사연구』, 제8호, 47-72쪽.
- 진상승. 2014. “동아시아 지역의 전통적 국제질서에 관한 몇 가지 문제.” 『한중인문학포럼 발표논문집』(2014.12), 301-326쪽.
- 하우봉(2006), “해양사관에서 본 조선시대의 재조명: 동남아시아국가와의 교류를 중심으로”, 『日本思想』, 제10호, 190-241쪽.
- 하우봉 외(1999), 『朝鮮과 琉球』, 서울: 아르케.
- 한명기(1999),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서울: 역사비평사.
- 호린 신(掘新)(2010), “동아시아 국제관계로 본 임진왜란”, 『임진왜란과 동아시아세계의 변동』, 한일문화교류기금·동북아역사재단 편, 서울: 경인문화사, 135-163쪽.
- Hawley, Samuel(2014), *The Imjin War, Japan's Sixteenth-Century Invasion of Korea and Attempt to Conquer China*, Berkeley: Conquistador Press.
- Swope, Kenneth M.(2009), *A Dragon's Head and a Serpent's Tail: Ming China and the First Great East Asian War, 1592-1598*, Norman: Oklahoma Press.
- Wood, William Alfred Rae(1993), *A History of Siam*, Bangkok: The Siam Barnakich Press.
- 曲明东(2004), “试论明朝与暹罗的关系.” 『五色大学学报(社会科学版)』. 第6卷 第4期, 70-73.
- 周郢(2017), “明万历壬辰之役‘借兵 罗发覆’”, 『历史研究』, 第6期, 178-186.
- 羅麗馨(2011), “豐臣秀吉侵略朝鮮”, 『國立政治大學歷史學報』, 第35期, 33-74頁.

〈Abstrat〉

A study on the suggestion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during the early Imjin War

Kim, YoungJin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research of the Imjin War has mainly focused on the bilateral relations exclusively among Korea, China, and Japan. In documents from that era, however, can be found many suggestions for a military cooperation including some Southeast Asian countries like Liukyu and Siam. The Jurchen, a rising power located between Ming and Chosun, volunteered to send a troop of thirty thousand men.

A close look at the discussions shows some interesting points. Some suggestions were very seriously discussed in Chosun as well as China, even though they could not, for some reasons, be realized. And the suggestions were strategically meaningful, because Japan should have kept some of its military forces in its territory and prepare for a possible attack from the third countries. The suggestions, however, were rejected by Ming and Chosun themselves, who might have needed an urgent help from other countries. They thought that the a military help might lead to change in power relations in East Asia.

The failure of a military cooperation with a third country reflected the non-function of the so called Chinese Empire, that governed East Asia at

that time. The appearance of quite lively ideas on the cooperation, including East Asian countries, however, implies a gradual change of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system in East Asia.

Key words: Imjin War, Military Cooperation, Chinese Empire, East Asia, Southeast Asia

논문접수일: 2019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 2019년 6월 2일, 게재확정일: 2019년 6월 19일

